

격려사

불교사회연구소의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발간을 축하합니다. 본 논문집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연구자들과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국불교는 그동안 희소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기에 소수의 스님과 전공 학자의 원력으로 열악한 연구 환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때로는 학문과 연구라는 순수한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국불교’를 치지도외(置之度外)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존 연구의 뒤틀림을 바로잡는 ‘재조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사회연구소의 이번 논문집 발간은 종단 차원의 ‘호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천명하는 첫 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집 발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수난에서 읽을 수 있는 ‘호국불교’ 사례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 스님들과 사찰이 받았던 고통과 고뇌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호국불교는 그 정의와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속에서 안타깝게도 객관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왔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연구자가 주목하는 불교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상황에 대한 이해와 사료의 발굴 정도에 따라 ‘호국불교’에 대한 평가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호국불교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더 폭넓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호국불교 전통은 숭고한 정신과 애민애족의 고귀한 희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불교에 대한 일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책임있는 성찰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 역사와 민족에 대한 종교의 책임성이 무엇인지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33대 총무원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발원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자성과 쇄신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조들의 대장경 조판과 의승군 활동 등에 담긴 동체대비 보살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논문집 발간을 계기로 과거의 준엄한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 우리 종단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몇 가지 연구쟁점들과 미흡한 연구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련 연구자들과 불교사회연구소의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본 연구논문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해 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뜻 깊은 연구 성취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호국불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산대제 제향의례’를 복원한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의 원력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호국불교 연구를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심과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6(2012)년 12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